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복음의 순수성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17절

Tag: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2:14-17)

오늘날 가장 복음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도전을 한국교회에 던져주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하게도 그분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거론하는 교단도 있다. 소위 ‘나의 복음’(나에게 경험된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주장과, 복음학교 기간 중에 ‘나의복음’을 발표하는 훈련생들 가운데는 자신의 음란한 죄를 공개자백하는 것 외에는 별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비판 목록으로 삼았다. 복음은 분명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일터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적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 적용이 선교적 삶?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약하다. 선교적 삶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렇게 하는 것 만이 진정한 복음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기성교회에는 이런 복음 운동이 없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이 있어왔다. 지나치게 과격한 실천을 강조해서 마치 눈에 보여지는 실천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이단시비의 맥락인 듯 하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이렇다. 김용의선교사는 기성교회에 탄지를 결만 했고, 기성교회도 가만있지 않고 맞받아 친 셈이다.

다만 이단시비를 운운한 교단이 너무 심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느낌이다. 그는 평신도요, 신학적 아킬레스 건이 있는 분이니만큼, 이단시비는 그분께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연구가 진일보 했다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용의 선교사의 복음 이해가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음에 대한 강조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는 느낌? 더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느낌? 그러자 교인들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는 느낌?)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작위적으로 말을 만들어 낸다면 ‘복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윤석전 목사와 고 윤덕수목사가 대표적이다. 역시 율법주의가 가지는 매력은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게 된다.

복음 율법주의는 복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로 인한 언행이 지나치게 복음중심이어서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자신과 같이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말이 시원하고 유창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설득력이 더욱 크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도 어느 정도 복음 율법주의가 있으나, 김용의 선교사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그들 중 아무도 나는 진짜고, 나처럼 살지 못하는 당신은 가짜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듣는 청중은 자연스럽게 ‘나는 저렇게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구나’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학교를 마치게 되지만,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복음 율법주의의 요요현상)

이것이 복음 율법주의이다. 복음으로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초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욱 율법주의적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셈이다.

원조는 역시 바울이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으며,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식적인 사람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가 스스로 지나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스테반 정죄로 인한 살인죄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복음전파에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으며, 마땅히 여겼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경건한 삶에 관한 것이지 자신처럼 독신으로 선교여행에 올인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바울의 서신서는 그런 자신의 행위가 묻어나기는 해도 불가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한 것들이지,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김용의 선교사의 경우처럼, 어떻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감동스러운 간증과 복음의 핵심은 구별해야 한다.

복음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을 본래의 맛과 향으로 변화시킨다.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본래의 맛과 향이 나는 진정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복음의 생명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대적하는 자들은 심하게 복음을 핍박한다. 어차피 핍박은 일어나게 마련인데, 냄새를 풍기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 핍박의 강도가 세지고 빨라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복음이 될 우려도 있게 된다.

때로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바울의 예루살렘),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수도 있지만(야고보), 어느 순간 그 지역이 복음에 젖어드는 경우도 있다.(에베소처럼) 시대와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뿐이다.

이단으로 시비를 거는 교단은 이점을 고려해야 하고, 김용의선교사도 스스로가 복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선린교회의 태도

1. 목적

-복음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

2. 기초적 작업

-복음의 본래 의의 탐구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탐구 자료는 성경과 역사이다. 특히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역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탐구 자료는 유럽 기독교의 몰락이다. 30년 전에 교수들은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 교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은 아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핵심가치 탐구

-복음의 본래 의의를 탐구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핵심가치도 도출된다.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석처럼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고 복된 것은 이미 수천년동안 신학자들이 그런 수고를 잘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석이라도 다시금 닦고 광을 내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 법이다. 복음의 본래 핵심가치가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그 가치가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는 역시 우리의 것이다.

-복음문화(복음이 변화시키는 문화)의 절대성에 대한 바른 이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복음문화의 절대성이 상대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아이러니이다.

-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복음 율법주의자들처럼 교묘하게 자랑도 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무기는 열매의 풍성함 밖에 없다.

-진짜 복음에는 진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여기에 있다.

3. 복음을 혼잡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구약 율법주의였고, 그리스도론을 공격하는 각종 이단들이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신성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것을 둘러싼 이단들이 일어났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단율법주의, 교회율법주의, 복음율법주의, 선교율법주의가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율법주의인가를 탐구하는데 힘 쏟기 보다는 무엇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가를 탐구하는데 힘 쏟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율법주의의 특성상 정죄의 목적으로 탐구해 들어가면 결국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복음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면 율법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혁신동력에 주력해야 한다. 개신교가 비로소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역사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생명력은 남아 있는데 혁신 동력(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혁신동력이 생기도록 그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것이다. 혁신동력이야 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이다. (자신을 바꾸고3, 가정을 바꾸고2, 세상을 바꾸는 능력1)

우리교회는 바로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우리가 꿈꾸는 부자생활 성경: 누가복음 18장 18-30절

Tag: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눅18:18-30)

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변할까?

왜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면 믿음이 떨어질까?

-그것은 건강한 부자 기독교인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부자에는 줄부가 있고 경건한 부자가 있다.

-부자가 되어서, 향락, 방탕, 사치, 여행, 호텔, 저택, 수집, 사업에 빠진다면 그는 평범한 부자,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만한 정도로 어려운 부자가 된다.

-이보다는 더 나은 부자는 자기의에 빠진 부자다. (오늘 본문)

-그는 마치 자신이 부를 쌓은 결과는 스스로의 의로운 생활에 기인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부류들이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며, 남보다 부지런 했으며, 남보다 절약했으며, 남보다 경건해서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 천국에 갈지 의심이 약간 든다.

-이보다 좀 더 나은 부자는 경건하며, 헌금도 많이하고, 구제도 많이하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가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겸손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기독교인 부자들 중 퍼센티지가 가장 많다. 지옥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다.

-세상에 많은 부자는 사기꾼, 범법자, 정치와 야합한 자, 머리는 비상한 자, 죄를 범하고 잡히지 않는 자 등이다. 이들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간다.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다.)

- 진정한 기독교부자는 이래야 한다.
- 그는 산업과 정세에 민감해야 한다.
- 그는 자신만의 업계 비법이 있어야 한다. 카네기는 4년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 그의 주변에는 산업과 관련된 혁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한다. (정주영과 해상 시추탑)
- 그는 영적 감각이 있어서 사탄의 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그는 교회를 섬기며, 교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야망을 가져서는 않된다.
- 그는 예수님이 부자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고,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 카네기는 1901년 회사를 팔고 은퇴하였으며, 그 돈으로 자선사업(공공도서관설립 3천개, 7천대 파이프 오르간 교회에 기증.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에 힘쓸 수 있도록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다.
- 헨리 포드가 한 말 ‘나의 공장을 가져가고 차를 부셔도 좋다. 다만 나에게서 포드 사람만 빼앗아 가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지금의 포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그의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의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며 그들의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한다. 자선에는 공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과 사회과학과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모델은 록펠러. 그의 공과 과를 함께 배우라.)
- 부분별한 복지가 최악의 자선이며 그것은 사실 표발관리에 불과한 독약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는 부자의 몫이며, 국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 그는 혁신의 발이 곧 경건한 삶이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영향력이 더 많이 더 오래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